

신규 회계연도 임박, 美 의회 예산안 입법 동향

- ◆ 의회의 예산 합의 난항에 美 연방정부 업무정지 가시화(23.10.1)
- ◆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나 내부 반대 직면
- ◆ 다수 현지 기관은 업무정지까지 진행될 가능성 적게 평가

I. 개요

- 예산 합의 난항에 美 정부 업무정지(shutdown) 가시화(23.10.1 예정)
 - 현재 의회가 처리한 예산 관련 법안은 전무(총 12개)
 - 상원 세출위원회는 12개 예산 법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승인했지만, 하원 세출위원회는 10개 예산 법안에만 표결을 승인
 - * Labor-Health and Human Services-Education Bill, Commerce-Justice-Science Bill 심사 중
 - 신규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모두 처리하기에는 시간 제약이 있으나, 의회는 지속 결의안(continuing resolution), 일명 임시 준예산(stopgap) 법안을 처리해 정부 폐쇄를 방지 가능
 - 기한 내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, 연방정부는 최소한의 기능만 남기고 운영이 중단되며, 30% 이상의 연방 직원이 무급 휴직에 돌입
 - 핵심 기관인 공화당 주도 하원의 행보에 관심 증대
 - 하원은 올해 초 부채한도 상한 협상 당시 회계연도 2022 지출예산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안을 제시한 바 있음
 - 예산 규모보다는 낙태 등 양당 이념 대립이 예산안 통과 난항의 주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,
 - '24년 미국 대통령선거와 밀접한 이번 예산안의 합의 과정에 이목 집중

II. 주요 내용

-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공유한 향후 예산 관련 계획(9.13)
 - (1) 임시 준예산 법안과 (2) 행정부가 요청한 긴급 예산에 초점
 - (임시 준예산) '23.12초까지로 기존 논의되었던 유예 기간을 한 달('23.11.1限)로 축소할 예정 * 8% 예산 삭감안으로 9.21 하원 표결 예상(NYT, 9.17)
 - 통상적인 유예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으로 합의해 예산안 관련 공화당 하원의 주도권을 강화할 전망
 - (긴급 예산)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(\$240억)에 대한 사항은 미정이나, 재난 구호 자금(\$160억)은 민주당이 이민법 강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국토안보부 기금 법안에 포함해 공화당 추진 예산안에 힘을 실을 예정 * 조디 애링턴 하원 예산위원장은 9월 내 하원이 최종 예산 결의안을 발의할 것으로 언급(9.13)
 - 하원의장의 전략 수립에도, 하원 내부 의견 통합은 미지수
 - 일부 의원들은 하원의장이 계획 발표 후 차기 회계연도 국방비 지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전하려 했으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언급
 - 이를 두고, 하원의장이 최후에도 당내지지 세력을 동원한 일방적인 정부 섯다운 회피 전략을 구사할 수 없다는 우려도 존재(폴리티코)
- 상원은 3개 예산안과 관련해 표결 절차 진행에 합의(9.12, 85-12)
 - 이른 시일 내 하원이 처리한 군사 시설 법안(S.2127)과 상원 교통·농업(S.2437, 2131) 지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전망
 - 상원은 올해 초 부채한도 상한 협상 과정에서 보인 대립 구도가 완화, 초당적인 예산안 통과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(블룸버그)
 - 법안이 모두 통과되어도 정부 섯다운은 피할 수 없지만, 상원이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 양원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전략으로 평가
 - * 벤 카딘 상원의원(D-MA)은 섯다운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하원에 달려있다고 발언

<상원 미니버스(minibus) 패키지 주요 내용>

법안	세부	비고
군사 시설(S.2127) [약 \$3,160억]	국방부	· 군 시설 확장·보강에 \$190.7억 편성 (現 예산 比 △\$0.7억, 대통령 제안 比 △\$24억)
	보훈처	· 부처 재량·의무 자금 \$2.965억 편성 (現 예산 比 ▽\$67.3억, 대통령 제안 比 ▽\$232.1억)
	관련 부처	· 관련 부처에 \$4.71억 편성
교통(S.2437) [약 \$989억]	교통부	· \$284.3억 편성(의무 지출 \$794억과 함께 총 \$1,078.3억) (現 예산 比 △\$14.9억, 대통령 제안 比 △\$5.83억)
	주택도시개발부	· \$700.6억 편성 (現 예산 比 △\$98.8억, 대통령 제안 比 ▽\$5.13억)
	관련 부처	· 관련 부처에 \$3.95억 편성
농업(S.2131) [약 \$2,078억]	농업 사업	· 농업 사업에 \$85.8억 편성 (現 예산 比 △\$1.85억, 대통령 제안 比 ▽\$6.24억)
	농장 생산·보존 사업	· 생산·보존 사업에 \$282.7억 편성 (現 예산 比 ▽\$69.2억, 대통령 제안 比 ▽\$2.9억)
	농촌 개발 사업	· 농촌 개발 사업에 \$39.4억 편성 (現 예산 比 ▽\$1.38억, 대통령 제안 比 ▽\$9.2억)
	국내 식품 사업	· 국내 식품 사업에 \$1,611.6억 편성 (現 예산 比 ▽\$280억, 대통령 제안 比 ▽\$275.5억)
	해외 지원 사업	· 해외 지원 사업에 \$23억 편성 (現 예산 比 △\$0.55억, 대통령 제안 比 △\$0.14억)
	관련 부처	· FDA 및 관련 기관에 \$35.6억 편성(총 예산 \$67.4억 추산) (現 예산 比 △\$0.2억, 대통령 제안 比 ▽\$3.52억)

[자료 : 현지 언론자료 종합]

III. 현지 반응 및 전망

□ 백악관, 공화당 예산안을 반박하는 보도자료 발표(9.14)

○ Bidenomics와 공화당 예산안(MAGAnomics)의 차이를 집중 조명

- 공화당 예산안은 현 행정부가 추진한 최저 법인세를 개정해 기업과 부유층에 5.1조 달러 규모의 세금 삭감 혜택을 부여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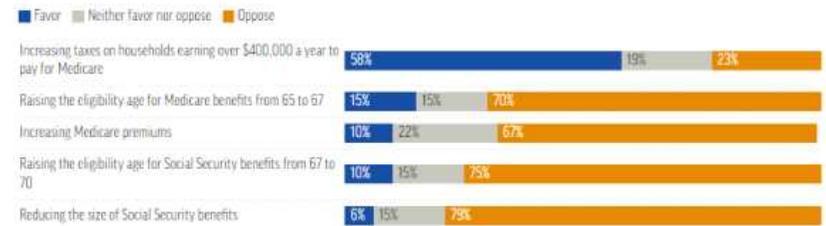
* 4백만 달러 이상 수입을 기록하는 가정에 평균 17.5만 달러 세금 삭감 가능성 제기

- 부채 감축을 위해 사회보장제도, 학자금 대출 지원, 친환경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정부 지출을 축소할 전망

* 사회보장제도 은퇴 규정 69세로 인상, 월 35달러 규모 인슐린 보조금 폐지, 건강보험료 평균 800달러 달성, 1,000달러 학비 지원 폐지 등의 가능성 제기

- 보도자료는 행정부가 강화해온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여론을 인용하며, 공화당의 예산감축 방향성이 여론과 역행하는 것으로 주장

<사회보장제도 관련 여론 조사 동향>



[자료 : AP 여론 조사, 백악관 가공]

□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의 협상이 최대 쟁점

○ 하원의장과 프리덤 코커스(Freedom Caucus)와의 대립은 현재 진행 중

* Freedom Caucus: 공화당 내 강경 우익 성향 의원 모임, 222석 중 43석 차지

- 최근 하원의장이 '대통령 탄핵을 위한 특별 조사'를 하원 주요 부처에 명령한 것을 두고, 일부 언론은 하원의장이 예산안 처리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공화당 강경파와의 협상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예상

-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매카시 하원의장이 당선 과정에서 강경파 의견을 과도하게 수용해 하원 통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평가

○ 온건파 의원들의 협상 그룹 합류로 섀도우 회피 가능성도 제기(블룸버그)

- 공화당 하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이전 부채 상환 협상에서 제외되었던 패트릭 맥헨리(R-N.C), 가렛 그레이스(R-La), 더스티 존슨(R-S.D) 의원이 하원의장을 지원해 하원 민주당과의 임시 준예산 법안 합의 가능성 증대

[자료원] Bloomberg, Politico, NYT, WSJ 및 KOTRA 워싱턴무역관 보유자료 등